



주간투자전략 (6/15~6/19)

“휴전 기대와 FOMC 동결 속 주도주 재편 국면”

- 금리·중동 변수보다 실적이 중요한 시장 국면
- CPI·PPI·FOMC 가 결정할 시장 방향성
- 금주는 추격보다 실적 중심 분할매수가 유효한 구간
- 따라서 반도체·전력·방산 중심 주도주 재평가

국내 기업 실적과
수출 모멘텀은 여전히 양호

금리·중동 변수보다 실적이 중요한 시장 국면

지난주 국내 증시는 미국 금리 상승과 AI 투자심리 둔화 우려로 큰 폭의 변동성을 경험했으나, 현재 국면은 추세 하락보다 과열 해소와 정상적인 속도 조절 과정으로 판단한다.

KOSPI 는 8,000 선을 회복하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KOSDAQ 도 1,000 선 안착에 성공했다. 미국-이란 휴전 협상 진전 기대는 국제유가 안정과 위험자산 선호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긍정적 변수이다. 이번 주 KOSPI 예상 밴드는 7,900~8,800pt 이며, 미국 물가와 금리 변수는 부담 요인이지만 국내 기업 실적과 수출 모멘텀은 여전히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CPI·PPI·FOMC 가 결정할 시장 방향성

시장은 미국 CPI, 미국 PPI, FOMC 회의, 미국-이란 휴전 협상, AI 투자 사이클 지속성 검증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이벤트에 주목해야 한다. CPI 와 PPI 는 향후 금리 경로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며, 물가 안정 확인 시 성장주 투자심리 회복이 가능하다. FOMC 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지만 점도표와 향후 통화정책 방향이 시장 변동성을 결정할 전망이다. 또한 미국-이란 협상 진전은 유가 안정과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로 이어질 수 있어 국내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추격보다 실적 중심 분할매수가 유효한 구간

투자전략의 핵심은 공격적인 추격매수보다 실적과 현금흐름이 확인되는 종목 중심의 분할매수 전략이다. 최근 시장은 지수보다 업종과 종목별 차별화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반도체는 여전히 핵심 주도 업종이지만 일부 수급 부담이 존재하는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외국인 수급이 특정 종목 중심에서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 조선, 방산, 전력기기, 건설 등으로 시장 폭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포에 의한 매도보다 실적 상향 기업 중심 대응이 바람직하다..

지수보다 실적과 현금흐름,
구조적 성장성이 확인된
기업으로 선별 접근

따라서 반도체·전력·방산 중심 주도주 재평가

금주 투자 유망 섹터는 반도체, 전력인프라, 방산, 건설, 조선, 소비 회복주이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HBM·DDR·NAND 업황 개선의 핵심 수혜주이며, 대한전선과 HD 현대일렉트릭은 AI 데이터센터 전력 투자 확대 수혜가 기대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글로벌 방산 수요 증가, 현대차는 로봇·자율주행 가치 부각이 긍정적이다. 자화전자는 AI·XR 기기 확산 수혜주이며, 팬오션은 글로벌 물동량 회복의 대표 수혜주이다. 결국 이번 시장은 지수보다 실적과 현금흐름, 그리고 구조적 성장성이 확인되는 기업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는 구간이다.

[한장으로 읽는 금주 투자 전략 요약]



핀릿 리서치센터

Analyst 김영진



現 독립리서치 핀릿 대표 &
연구위원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헤지펀드 운용전문인력

부동산투자 자산운용사

매경, 한경 등 주요 언론사 Best
Analyst 출신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서치/자산배분 본부장

하이자산운용 헤지펀드
운용실장

K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대행

NH 투자증권 / UIG 투자증권 /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등 역임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는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자료 작성자 김영진은 자료 제공일 현재 이 자료에 언급된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선행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합니다.
- 이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투자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이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는 당사 저작물로서 모든 지식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자료를 당사 임직원 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고지사항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